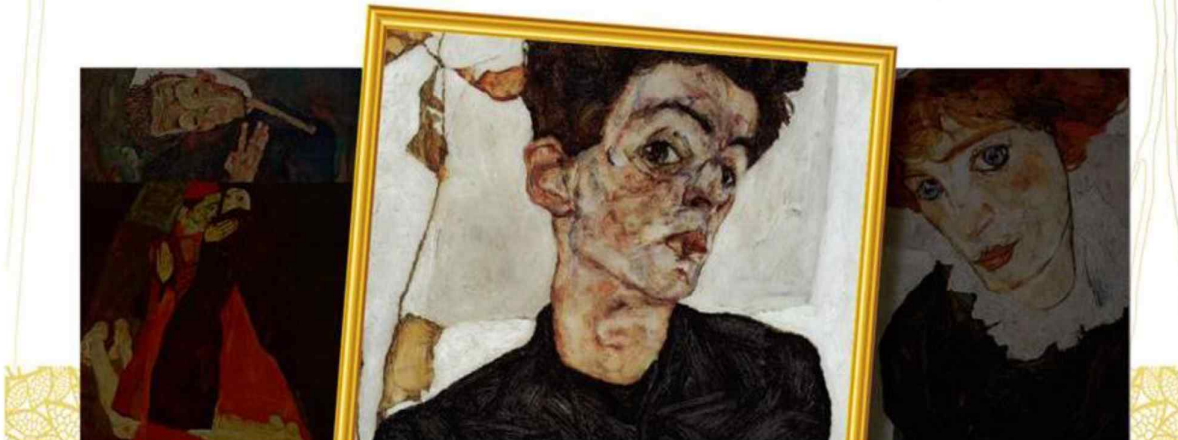


20세기 황금색체의 거장 레플리카 名畫展

Gustav Klimt Egon Schiele

레플리카 名畫展

구스타프 클림트 & 에곤 실레
한국순회 전시회



Subject: 전시작품 전시목적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의 명화들은 각 박물관 및 개인 소장가들의 소유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으며, 더욱 개인소장가들의 원본작품은 전시회를 기피하여 오리지널 유화작품 53점의 한자리에서의 전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명화 임대는 임대를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투자금과 원본 작품의 손상 및 도난 등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가 액수만 약 7.5억 EURO~10억 EURO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작품임대료, 운송료, 보관비 등은 제외)

오스트리아 정부는 각 뮤지움과 개인 소장작품 등 자신들이 보유한 문화 유산과 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이 보유중인 레플리카 기술력으로, 레플리카 제작 공식기관인 TWIN 박물관에서 **100년 동안 원본의 100% 색감 보증과 캔버스지 위에 오리지널 크기로 제작하여** 한국 전시를 위해 한정 수량인 **리미티드로 제작하여 작품마다 공식보증서가 첨부된 레플리카를** 한국하이든 문화재단에 제공하여 본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 입니다. 에곤 실레의 작품은 한국 최초 전시회로서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에서만 스승인 클림트와 함께 작품을 전시하는 최초의 전시회 입니다.

고가의 작품을 대신하거나 소실된 작품 재현의 전시회를 위하여 오스트리아에선 1935년부터 레플리카 (복원작품)를 제작하여 오리지널 작품들과 함께 전시되고 있으며, 고품격의 풍성한 문화 콘텐츠인 레플리카 전시회를 이번 한국하이든문화재단의 전시회를 계기로 한국 미술 애호가들의 인식전환과 지금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의 문화유산 교류를 목적으로 기획했습니다.

값싼 미술품과 이름만 빌려오는 일부 전시회 때문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소수의 특권계층만이 즐기는 전시회가 아닌 일반대중과 미술 애호가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작된 양질의 작품을 소개하며, 특히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품 보는 방법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교육적 목적으로 도슨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파견 만프레드 톰베르크 큐레이터 기자회견



(2014.1.18 YTN 기자들 인터뷰내용과 질의서 답변)

오스트리아 외무부에서 파견한 큐레이터 겸 제작자 Mr.Manfred Thumberger 기자회견 내용:

저는 비엔나에 있는 레오폴드 미술관과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레오폴드 미술관은 세계에서 예견 실례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예술에 전담 전시의 작품 작업은 모든 비엔나의 우수한 미술관들과 개인 소장자의 원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축약

"죽음과 삶" 작품은 아주 예민한 상태여서 소유 미술관에서 작품이 다른 장소에서 전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직접 보고 다루게 됨으로써, 소유 미술관 큐레이터의 승인을 받는 순간 원본과 일치 하는 작품을 제작 할 수 있습니다.

클림트의 유명한 생명의 나무 시리즈 3편은 벽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벽화의 전시를 위한 제작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전부터 소실된 작품의 복원과 벽화작품의 전시를 위해 1930년부터 완벽한 기술력으로 조금씩 작품들이 복원 되었습니다.

더욱이 클림트의 작품들 몇 개는 벽화 그림과 비엔나 예술 페스티벌의 포스터로 제작되어 더욱 유명해진 작품과, 클림트의 많은 유화작품은 수채화적 기법으로 입체감이 많이 없는 포스터 같은 화풍이 주목할 만 합니다.

만프레드 관장이 일주일간 큐레이팅을 하시고 레오폴드 박물관과 개인소장가의 작품을 레플리카로 직접제작, 오스트리아에서 파견한 큐레이터를 보내 전시회를 진행한 기획 전시로 대만, 하노이, 일본, 북경(국경일 행사전시), 모스크바 등 2012년부터 이번 한국전시까지 엄청난 호응을 받은 전시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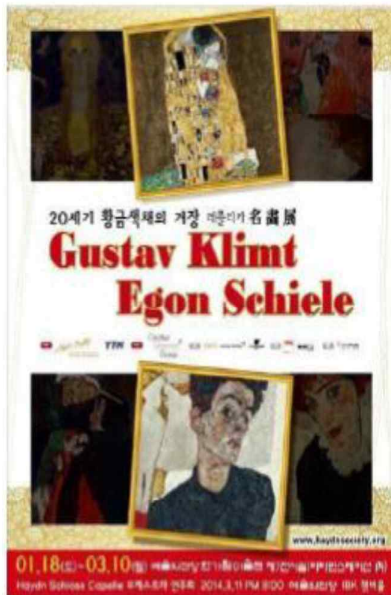
벽화 작품의 경우 황금색이 많이 벗겨진 것과 클림트가 제작시 써두었던 글씨까지 벽화처럼 직접 감상이 가능한 원화의 실제 크기와 색감 및 입체감 100%의 고유한 복제기술을 보여주는 전시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스트리아 문화정책으로 이전부터 제작 되어진 레플리카의 기술력을 제공하여 전 세계 관객들이 영화를 친근감 있고 편하게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스타프클림트 & 에곤실레 레플리카 명화전 전시 참고자료

구스타프클림트 & 에곤실레 레플리카 명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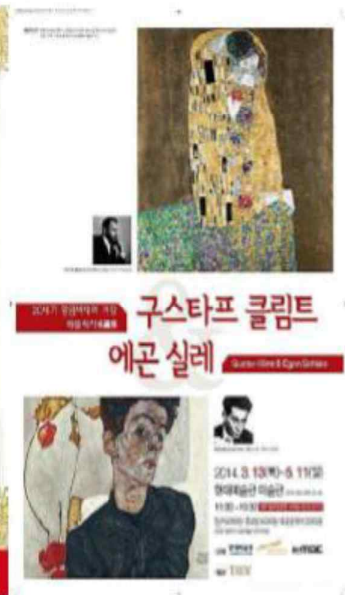
세계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명화의 대중적 전시를 위해 기획된 오스트리아 정부 인증, 레플리카 명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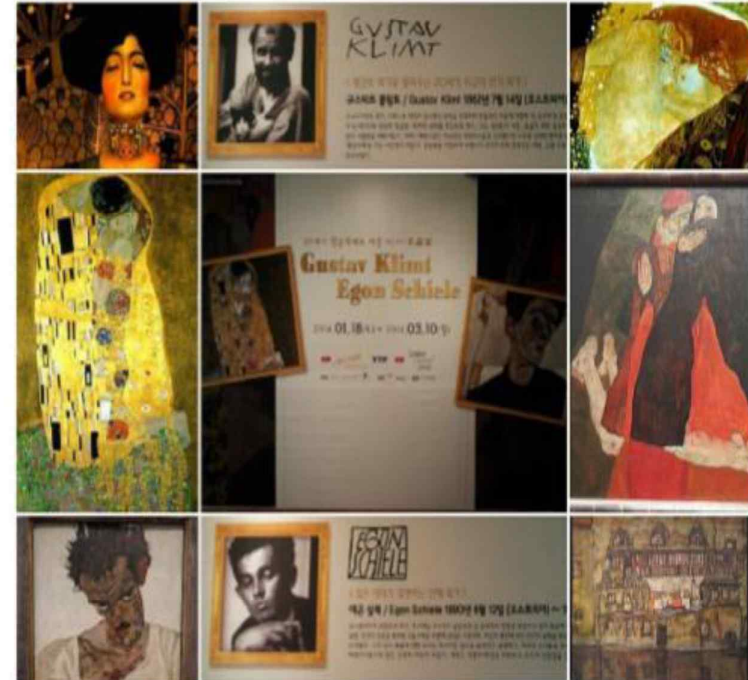
<예술의 전당 포스터>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2014.01.18~03.10

울산 현대미술관 2014.03.13~05.11



<현대미술관 포스터>



대부분의 관객들은 전세계를 돌아다녀야 볼 수 있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과 원화의 붓터치가 살아있는 레플리카 작품을 근접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대중적 전시

<TV 취재 방영_주요매체>

1. KTV_20세기 황금 색채의 거장들의 명화전 [국민리포트_2014년 2월 28일]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78943



2. YTN_NEWS24_동영상 별도 첨부



3. 아리랑TV_동영상 별도 첨부



4. MBC_문화사색_동영상 별도 첨부

[컬처 앤 북] 구스타프 클림트+에곤 실레展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레플리카 名畫展



3월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뒤로한 채 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따뜻한 봄바람을 기대하기는 이릅니다. 늦겨울의 뒤늦은 사색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마음이 풍성해지는 **황금빛 물결의 전시회**를 통해 봄을 기다리는 여유를 만끽하며 마음을 다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는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 레플리카 명화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3월 10일까지). 이번 전시회는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에곤 실레 작품 25점과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 28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품 형식상의 한계로 원본을 그대로 전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총 53점의 작품은 레플리카로 제작되었습니다. 레플리카는 원작자 또는 엄격한 감독 하에 기술을 전수하며 원본과 동일한 재료, 방법, 기술을 가지고 원작을 똑같이 재현하는 방법으로, 전시된 작품들

중 받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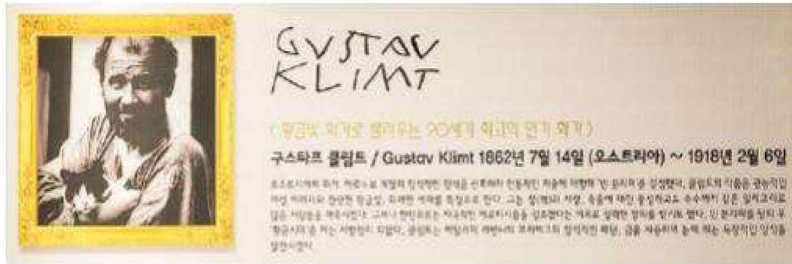
두 작가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매너리즘에 빠진 기존 예술계를 비판하며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진실만을 대담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그림을 보면 폭넓은 주제를 다루면서 강렬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난해하고 외설스럽다고 비판 받았던 많은 작품들이 현대에 이르러 그 가치를 높이 재평가 받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각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곱씹어 보며 감상했습니다.



황금빛 시대를 연 20세기 최고 화가, 클림트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했을 유명한 작품입니다. 작품명과는 다르게 실제 그림에서 그들은 입을 전혀 마주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의 몽환적인 표정에서 무릎 꿇은 채 경건하게 남자의 사랑을 받아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여인이 보이기도 하고, 더 이상 나아가

기 힘든 사랑의 굴레를 몸을 뒤돌아서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 더욱 애절한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는 생전에 인터뷰를 한 적 없고,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작품의 주인공들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 수 없어 더욱 신비스럽습니다. 왜곡된 형태와 화려한 패턴들의 조화를 통해 리얼리즘과 추상을 합성했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며 그가 가졌던 여성에 대한 환상과 현실에서 느꼈던 여성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림트의 작품들은 한 작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활용된 표현이 굉장히 다채롭고 그만큼 그 작품들의 분위기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기하학적인 무늬를 자주 활용했는데, 밝게 빛나는 황금빛 바탕 위의 이집트 풍의 패턴들은 그의 비잔틴 미술양식 취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품에서 자연 풍경을 묘사하기도 했는데 각 상황의 분위기와 주제에 맞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물에 비친 자연물을 표현할 때는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하여 물 위에 아스라이 떠다니는 물체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을 산의 모습은 물체의 테두리를 강조하여 나무의 마지막 생명력을 느끼게끔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삶과 죽음과 같은 세상사의 깊은 이면에 역시 관심을 가졌는데 그가 홀로 그의 길을 걸을 때 독대하며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 천재 화가, 실레

에곤 실레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제자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클림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픽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림을 그리다가 점차 클림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더욱 급진적인 표현주의자로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확실히 클림트의 작품보다는 화면 구성은 간단하지만 그 위에 굵고 진한 붓치질을 남겨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내밀한 관능적 욕망, 인간의 실존을 둘러싼 고통스러운 투쟁에 관심을 가졌기에 의심과 불안에 휩싸인 인간의 육체를 왜곡되고 뒤틀린 형태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노골적인 묘사와 표현은 에로티시즘을 자극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떠오르는 감정과 물체를 거침없이 작품에 투영했습니다. 자화상조차도 비뚤어진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Selfportrait with Chinese Lanterns> 라는 대표적인 자화상을 보면 그는 정면이 아닌 비스듬히 올려다 보는 각도로 바라보며 결코 기존 예술계가 원하는 정제된 그림은 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전반적으로 거친 붓 자국으로 표현되었지만 머리, 얼굴

옷 등 각 표면마다 붓의 방향을 달리하여 특징을 부각시킵니다.



또 다른 자화상인 <Lyricist>에서는 완전히 쭈민 고개와 긴 손이 괴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어두운 색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느낀 우울함과 시대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곤 실레 역시 삶과 죽음과 같은 인생의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고민을 함께하였는데 이를 굉장히 어렵게 나타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같은 예술 사조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클림트의 임종유언 에곤 실레가 지켰을 만큼 살아있는 동안 서로 많은 부분에서 의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에서 비슷하면서도 각자 너무나도 뚜렷한 두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며 보는 것도 중요한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취재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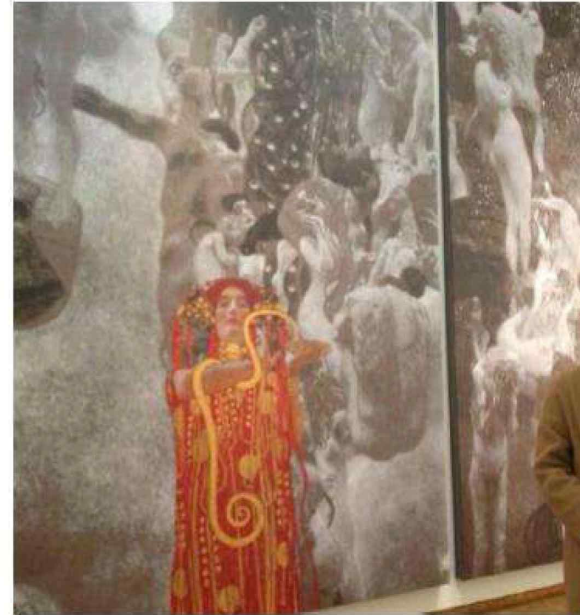
- 문화가 있는 날 '구름관중' 물린 예술의 전당
- [특집 '2월의 문화가 있는 날'] ④ 예술의 전당 음악화·미술전 정력기자 정혜경 | 2014.02.27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문화 황금기를 대표하고 있는 천재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 레플리카 명화전이 열리는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 도슨트의 설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곳 역시 구름 관중이 몰려 구스타프 클림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기획의도>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화들 중 대부분이 벽화 형태 또는 화재 손실, 포스터 등 액자 형태의 작품들이 아니었다. 후에 액자 형태로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명화의 가치를 남기기 위해 레플리카 작업을 통해 원작을 복원했다. 국내의 레플리카 작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작품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는 그릇된 전시가 아닌 붓터치 한번을 하기 위해 고뇌했을 예술가의 혼을 느끼는 전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히기에이아 Hygieia(detail from Medicine) / 원본 손실 / 오스트리아 리오폴드 뮤지엄_복원벽화 전시

화가로 명성을 차츰 쌓아가고 있던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에게 1893년 초, 빈 대학에 있는 대강당의 천장화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다. 천장을 의뢰받은 것은 아니었고, '철학', '의학', '법학'을 주제로 하는 세 개의 패널에 대한 주문이었다.

이 작품은 <의학(Medicine)> 패널 중 부분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건강의 여신인 히기에이아(Hygieia)의 모습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를 피하여 오스트리아 남부의 한 성으로 클림트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세 개의 패널도 이전되었다. 하지만 나치 친위대가 침수하는 도중에 성에 불을 지르면서 소실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작품이 소실되었다.

위 작품을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국내 기준으로 원화의 가치만을 따진다면 현재 '레오폴드뮤지엄'에서 소장하고 있는 클림트의 작품 역시 레플리카 일 것이다. 우리는 복제를 통한 복원 기술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역사와 함께한 명작들을 볼 권리와 기회가 주어 진다는 사실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전시계획서

전 시 계 획 서

신청인	성 명	번 주 영	대표자명	번 주 영
	사업자명	한국하이든문화재단	연 락 처	010-4506-5312
전 시 명	<p>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의 "황금시대 스토리"</p> <p>-오스트리아 정부주관으로 레오폴드 박물관 전시중인 원본을Twin 박물관 기술로 레플리카제작, 클림트 탄생 150주년 기념, 세계전시 순회 중 한국전시기획</p> <p>(표현주의, 에로티시즘의 거장 에곤실레의 작품 국내 첫 전시, 한국에서 유일하게 두 화가의 작품 동시 전시-레오폴드 뮤지움 원본의 리미티드 제작의 인증서 첨부)***2012년 중국National Day 기념으로 클림트 레플리카 전시회가 중국 정부와 중국주재 오스트리아 대사관 주관으로 베이징에서 전시된 정부 주관의 전시회입니다.</p>			
전 시 주 회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협찬	<p>오스트리아 비엔나 관관청 트윈박물관</p> <p>(원본소유박물관, 개인소장이 작품허가, 인증서)</p>	
부산 공동주최	부산시민공원	후 원	협의중	
전시회망기간	2014년 7월15일 ~ 2014년9월15일 <약60일간> 예정			
전시 취지 및 목적	<p><전시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정부 외무부와 한국 하이든문화재단의 <클림트 & 에곤실레 한국전시>에 대한 독점계약체결 -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박물관원본, 트윈박물관 제작협의 및 전시협의 - 현재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박물관 전시작품 중, 한국전시 53작품 확정 (클림트28점 유품화 & 실레 25작품 유품화 최종 확정) - 현재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뮤지움에서 클림트의 많은 작품들 중 세계최초로 전시되는 작품을 포함하여, 에곤 실레의 작품과 같이 전시 중이며, 이중 총 53작품이 오스트리아 정부의 공식 허가된 TWIN박물관에서 제작(에곤 실레의 한국 최초의 전시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클림트와 함께 처음 전시되는 레플리카전시회) (오스트리아 정부의 공식허가 박물관 TWIN 의 고유의 기술력으로 레오폴드 뮤지움 소유의 원본을 제작, 100년 동안 원본과 같은 색감을 보증하며, 캔버스 지 위에 오리지널 크기로 제작됩니다.)레오폴드 뮤지움 과 개인 소장작품의 원본 복제작품인 공식보증서가 첨부되는 레플리카 전시회로서 한국전시를 위해 리미티드로 제작되는 전시회입니다. <p>** 레플리카 : 그림표면에 플라스틱과 같은 피막을 만들어서 표면상태 그대로를 복제한 것으로, 무극한 견거한미경으로 시프론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과학 기법으로, 세계에서 많은 원본작품이 레플리카 형태로 전시되고 있다.</p> <p>시각적으로 원본과 같은 용법을 느낄 수 있으며 직접 손으로 만져볼수만 복제된 것을 알 수 있는 그 기술력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전시의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p> <p><전시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 기념과 구스타프 150주년을 기념하 			

	<p>여, 현대 미술사의 중요한 한 장르(빈 분리파-황금시대)에 대한 궁극적 증명과 일증을 풀어주기 위해 일반대중들에게 문화적 친근감으로 접근, 일반 대중들과 함께 명화의 화려한 색감과 현대 미술사의 황금시대를 연 배경의 스토리와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흥미 있는 많은 작품을 전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스트리아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레오폴드 박물관과 개인 소장작품 원본을 Twin 박물관에서 레플리카로 제작, 모스크바, 베이징, 하노이, 도쿄, 대만, 할리우드 등의 전 세계도시에서 성공적인 걸출을 거친 전시로 특히, 한국 전시에만 특별히 허가된, 에곤 실레의 작품은 국내에서 처음전시 되는 것으로 구스타프 클림트와 함께 전시됩니다.</p> <p>국내 문화부 기자들 조차 레플리카와 모사품의 기준이 정략하지 않습니다.</p> <p>오스트리아 정부주관으로 자국의 문화유산인 고가의 명화들의 원본의 색채를 재현, 저렴하고 양질의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주도하고 있으며, 명화의 수입의 막대한 투자금에 비해 값싼 미술품과 이품만 빌려오는 식의 전시 유치로, 많은 실망감과 고우 특관계충만이 즐기는 전시회가 아닌 일반대중과 미술 애호가의 일증을 풀어주기 위해 다량의 작품수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작된 양질의 작품을 소개, 정식 레플리카라는 인식이 부족한 안타까운 한국 실정에서 이번 전시로 인해 국내 관객에게 레플리카와 모사품의 차이와 리미티드 레플리카라는 고품격의 저렴한 문화 콘텐츠 전시회를 통해 인식의 전환과 다양한 형태의 양국의 문화유산 교류를 목적으로 기획,</p>
전 시 내 용,	<p>구스타프 클림트 작품 28점 유품화, 에곤 실레 작품 25점 유품화 확정, 총 작품53점 (오스트리아 정부의 주관하에 레오폴드 뮤지움 소유의 원본크기의 리미티드 레플리카 작품 전시회-Twin박물관의 제작, 공식적인 인증서 발급) 현재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뮤지움에서 구스타프 클림트 & 에곤 실레 전시중이며 공동전시의 일환으로 전시작품중 53점 리미티드제작 내한.</p>
전시작품 크기 및 수량	<p><구스타프 클림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DEL BLOCH-BAUER I 140 x 140 cm 2. PARKWAY AT KAMMER CASTEL 110 x 110 cm 3. ADELE BLOCH-BAUER II 185 x 120 cm 4. APPLETREE I 110 x 110 cm 5. ATTERSEE 80 x 80 cm 6. BIRCHWOOD 110 x 110 cm 7. FARM GARDEN WITH SUNFLOWERS 110 x 110 cm 8. DANAE 75 x 80 cm 9. THE KISS 140 x 140 cm 10. THE LARGE POPLAR II 100 x 100 cm 11. GIRLFRIENDS II 100 x 100 cm 12. HOPE II 100 x 100 cm 13. STILL POND 75 x 75 cm 14. HOUSES IN UNTERACH 110 x 110 cm 15. EMILIE FLOEGE 175 x 79 cm 16. HYGEIA 135 x 90 cm 17. ISLAND IN THE ATTERSEE 100 x 100 cm 18. LITZBERG AT ATTERSEE 110 x 110 cm

	<p>19, JUDITHI 84 x 42 cm 20, SILVERFISHES 82 x 52 cm 21, NUDA VERITAS 250 x 55 cm 22, GARDEN of Schönbrunn Place 110 x 110 cm 23, PALLAS ATHENE 80 x 80 cm 24, BULL IN COWSHED 80 x 80 cm 25, FULFILMENT 135 x 80 cm 26, TREE OF LIFE 135 x 72 cm 27, EXPECTATION 135 x 80 cm 28, DEATH AND LIFE 140 x 155 cm</p> <p><에른 질레></p> <p>1, Arthur Boessler 72 x 70 cm 2, THE LYRICIST 80 x 80 cm 3, BLIND MOTHER 95 x 115 cm 4, SUNFLOWER II 150 x 30 cm 5, THREE STANDING WOMEN 100 x 1058 cm 6, CRESCENT OF HAUSES 100 x 125 cm 7, HOUSES WITH COLORFUL LAUNDRY 100 x 120 8, HOUSE WITH SHINGLE ROOF 105 x 135 cm 9, WALL OF HOUSE BY THE RIVER 105 x 135 10, SQUATTING WOMAN 100 x 130 cm 11, AUTUMN TREE IN THE WIND 80 x 80 cm 12, YOUNG MOTHER 100 x 110 cm 13, CARDINAL AND NUN 65 x 75 cm 14, RECLINING WOMAN 95 x 170 cm 15, THE SMALL CITY IV (KRUMAU ON THE MODAU) 100 x 120 cm 16, GIRL 180 x 65 cm 17, MOTHER WITH TWO CHILDREN II 125 x 135 cm 18, SELF-PORTRAIT WITH CHINESE LANTERNS 32 x 40 cm 19, STILL LIFE ON A DESK 115 x 75 cm 20, SELBSTSEHER (DEATH AND MAN) 80 x 80 cm 21, SEATED MALE NUDE (SELF-PORTRAIT) 115 x 115 cm 22, SETTING SUN 85 x 85 cm 23, Stadt Stein II 90 x 90 cm 24, WALLY NEUZIEL 32 x 39,5 cm 25, REAR VIEW OF A FEMALE SEMINUDE 190 x 52 cm</p>
관람대상	<p>- VIP 및 PRESS PRE-EXHIBITION</p> <p>- 판매금액</p> <p>성인 7,000원/ 초중고생 5,000원/ 48개월이상 미취학어린이 5,000원 단체 20인이상 1,000원 할인 /할인티켓 5,000원(경로우대, 장애인, 국가유공자)</p>

특기사항	<p>1, 오스트리아 정부 주관사업-일반대중과의 교감을위한 새로운형태의 전시형태 (2012년 클립트 탄생150주년, 한-오 수교 120주년 기념 한국하이든문화재단과 문화교류 전시회)</p> <p>2, 모스크바, 베이징, 하노이, 도쿄, 대만, 헝리우드등 성공적인 전시회로 검증 이된 레플리카 세계전시순회 중 한국전시 유치-에른 질레작품 한국만 유치.</p> <p>3, 오스트리아 트윈박물관의 세계적 복제기술로 전시품 제작 (정부파견의 전문 큐레이터와 편집 내한, 고층 및 전시감리,1주일간체류)</p> <p>4,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뮤지엄 소유 원본작품들의 한국전시를 위한 리미티드 레플리카제작, 공식인증서철부.</p> <p>5, 국내 전시 : 예술의 전당 2014년 1월 18일 ~ 3월 10일 출산 현대미술관 2014년 3월 13일 ~ 5월 11일</p>
	<p>위와 같이 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2014 년 7월 8일</p> <p>대표 변주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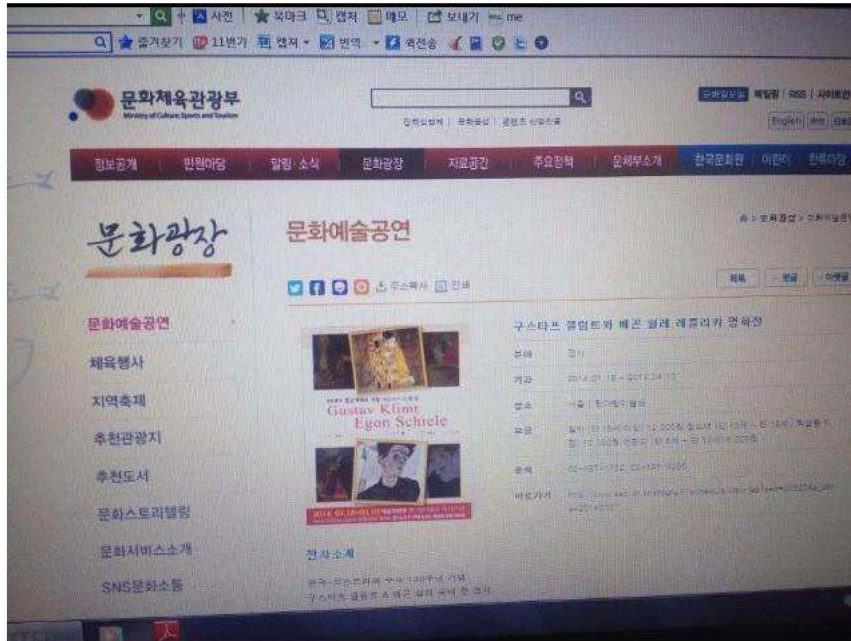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 서울전시(2014.01.18~03.10)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레플리카 名 畫 展
Gustav Klimt
Egon Schiele

2014. 01.18~03.1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관
 Haydn Schloss Capelle 오케스트라 연주회 2014.3.11 PM 8:00 예술의 전당 IBK홀



문화체육관광부 전시 취재, 사이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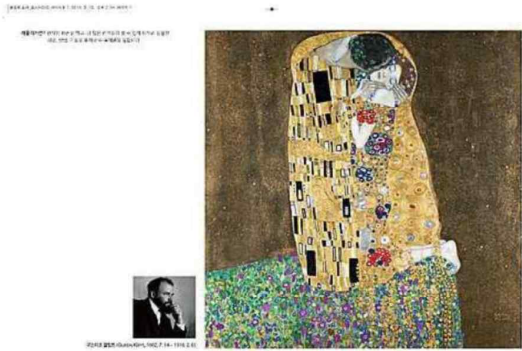
<취재기사>

- 문화가 있는 날 '구름관중' 몰린 예술의 전당
- [특집 '2월의 문화가 있는 날'] ④ 예술의 전당 음악화미술전 참석기자 정해경 | 2014.02.27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문화 황금기를 대표하고 있는 천재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 레플리카 명화전이 열리는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 도슨트의 설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곳 역시 구름 관중이 몰려 구스타프 클림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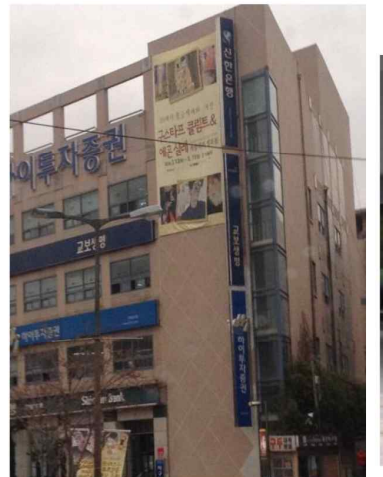
현대예술관 미술관 - 울산전시(2014.03.13~05.11)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레플리카 명화展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Gustav Klimt & Egon Schiele



부산시민공원 다솜갤러리 - 부산전시(2014.07.19~09.14)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레플리카 名 畫展

Gustav Klimt

Egon Schiele

부산일보사 부산시민공원

www.haydsociety.org

기간: 2014.07.19(토)~09.14(일) 장소: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해물튀김만 원자의 훼손을 막고, 더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게 원자와 동일한 재료, 방법, 기술을 통해 만든 복제품을 전시합니다.



나홀 동안의 환상 여행

10 2014년 7월 19일 토요일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소개: 나홀 동안의 환상 여행

베트남 문학 보고 듣고 노래

10 2014년 7월 19일 토요일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소개: 베트남 문학 보고 듣고 노래

오스트리아의 두 거장 '클림트·실레' 부산 왔다

10 2014년 7월 19일 토요일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소개: 오스트리아의 두 거장 '클림트·실레' 부산 왔다

클레식 매직과 데뷔, 부산시인의 생생한 문화향유 체험

10 2014년 7월 19일 토요일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소개: 클레식 매직과 데뷔, 부산시인의 생생한 문화향유 체험

"호찌민은 부산 기업의 리진, 항공 노선 확충해야"

10 2014년 7월 19일 토요일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소개: 호찌민은 부산 기업의 리진, 항공 노선 확충해야

아비농 간 부산 연극 "연희양식 흥미 호평"

10 2014년 7월 19일 토요일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소개: 아비농 간 부산 연극 "연희양식 흥미 호평"

박물관 국악 뮤지컬 퍼포먼스-즐거움 넘치게

10 2014년 7월 19일 토요일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소개: 박물관 국악 뮤지컬 퍼포먼스-즐거움 넘치게

춤꾼! 새롭게 태어난 웃음과 재미만 안면이 없네

10 2014년 7월 19일 토요일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소개: 춤꾼! 새롭게 태어난 웃음과 재미만 안면이 없네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실레

2014.7.19(토)~9.14(일)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부일음악콩쿠르

2014.7.19(토)~9.14(일)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실레

2014.7.19(토)~9.14(일)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실레

2014.7.19(토)~9.14(일)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실레

2014.7.19(토)~9.14(일)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실레

2014.7.19(토)~9.14(일)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실레

2014.7.19(토)~9.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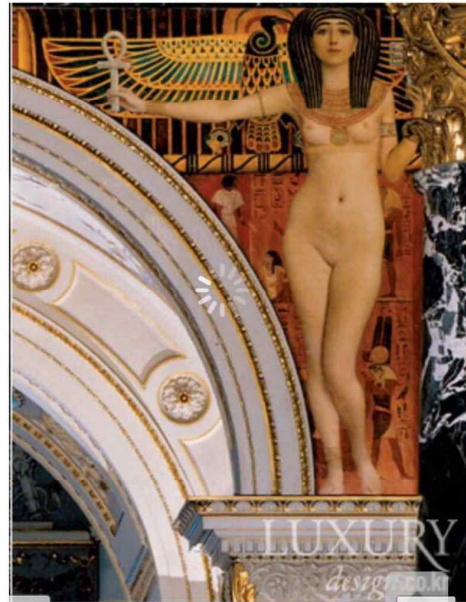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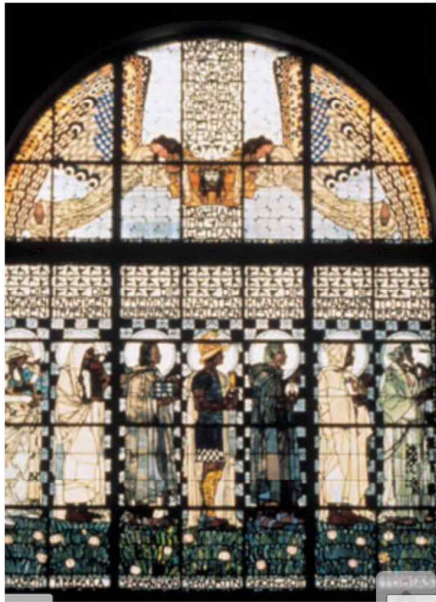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실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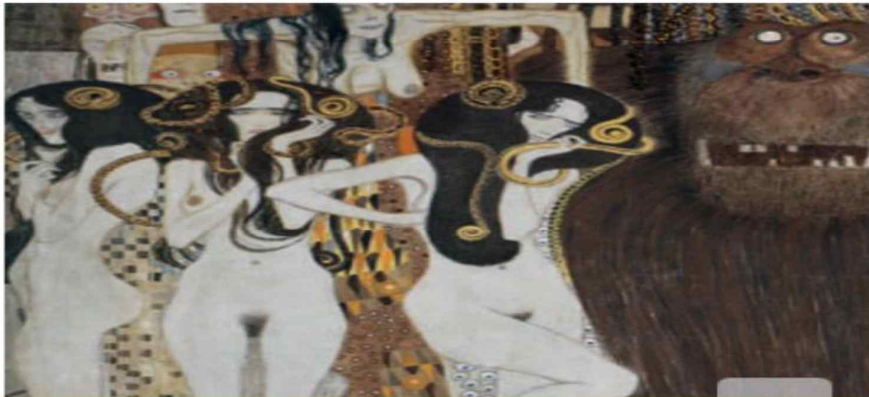
2014.7.19(토)~9.14(일)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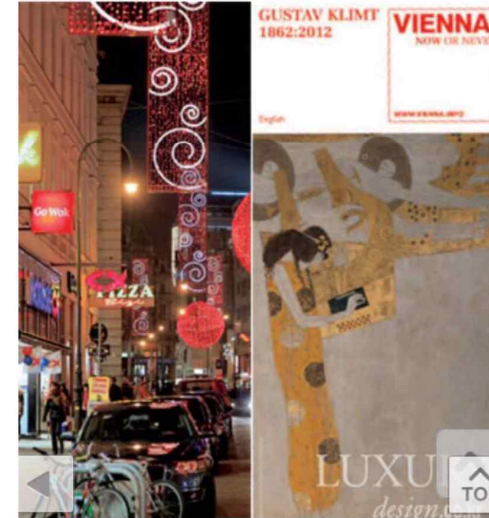
벨베데르 레플리카 전시회



(왼쪽) 모더니즘 스타일로 지은 유럽 최초의 교회 '슈타인호프'에서도 클림트가 작업한 스테인드글라스를 볼 수 있다.
(오른쪽) 클림트 작품은 빈 미술사 박물관의 벽에서도 만날 수 있다.



모더니즘을 선물한 빈의 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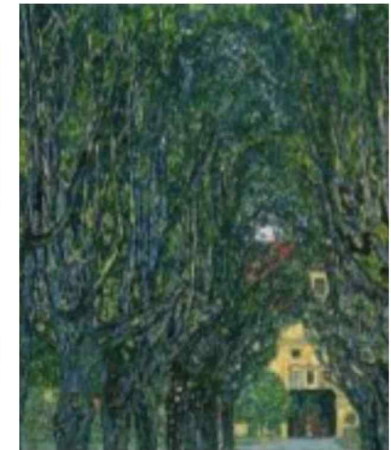
미술관은 지면의 경사를 이용해 지어 '상궁'과 '하궁'으로 구분되는데 '하궁Lower Belvedere'에서는 클림트와 요제프 호프만의 협업 작품을 특별전으로 선보인다. 요제프 호프만은 클림트와 함께 빈 분리파를 이끈 이로 이번 전시에서는 둘이 함께 완성한 브뤼셀 스토클레 궁Palais Stoclet의 호화로운 벽면 장식, 다양한 스케치와 건축 모형 등을 복제품으로 만날 수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시작한 전시는 오는 3월 4일까지 계속된다. www.belvedere.at



원화 레플리카 100% 크기와 색감 복원 작품.

(2007년 예술의전당 오리지널 원화전 렌트 작품 - 당시 스케치 몇 점만이 원화였으며, 외국의 대가작품들은 원화를 렌트 할 수 없습니다.(업계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0년대 비엔나 화가들 클림트전시회(중국 북경 국경일) 관장 Mr.Manfred Thunmberger 기사사진중

프로젝트명	
Gustav Klimt & Egon Schile “황금시대 스토리”	
기획 / 주관	한국하이든문화재단, 오스트리아 정부 외무부, TWIN 박물관 (레오폴드 뮤지움),
전시 예산	약 15 억 원
프로그램	빈 분리파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의 유화 53작품 전시 오스트리아 현대미술사의 빈 분리파 교육적 스토리 도록 제작, 하이든 실로스 카펠레(Haydn Schloss Capelle) 오케스트라 연주회 프로그램 2014년 3월11일 8시 예술의 전당 IBK홀 (600석)

Klimts „Adele“ in Peking

Twin. Österreichs Botschaft in Peking mutierte am Nationalfeiertag 2009 zu einem Mini-Museum für Wiener Malerei um 1900. Ein Treffen von Kunstgeschichte und Business: **Manfred Thumberger** hatte (vorerst) für das Leopold Museum die Reproduktionstechnik derart verfeinert, dass Nachbildung und Original identisch erscheinen, hierauf mit einem (an Öffentlichkeit uninteressierten) Investor, Ex-Judoka **Norbert Haimberger** als Marketingplaner und Ex-Volleyballer **Oliver Stamm** als PR-Mann die Firma Twin gegründet.

Martin Sajdik, Österreichs Botschafter in Peking, wiederum ließ nach einer Qualitätskontrolle 17 (reproduzierte) Gemälde und Grafiken von Klimt, Schiele, Kurzweil und Moll einfliegen. Aufgepeppt durch Schnitzerl, Kaiserschmarren und Veltliner, war nicht nur die Stimmung fabelhaft. Twin freut sich über weiterführende Aspekte: Die nächste Ausstellung findet im exklusiven Pekinger Jinbao Place Shopping Center statt, wo die chinesische Frau des österreichischen Unternehmers **Alois Maderna** mit Wittmann-Möbeln, Ludwig-Reiter-Schuhen und einem k. u. k. Kaffeehaus Austria bereits stark positioniert ist. Die Botschafter von Finnland und Slowenien wünschen sich Reproduktionen ihrer nationalen Kunst. Auch die Idee einer „Wien um 1900“-Wanderschau durch österreichische Botschaften wird weitergespielt.

sung nicht erfolgt ist. Sichflich zum Verdross des Advokaten.

Mittwoch, 4. November, befragte Ainedter die Justizministerin bei der Galanacht des Sports in der Event-Pyramide Vösendorf neuerlich. Sie blieb fest: „Ich werde gar nichts tun, Bitte lass mich in Ruh!“ Tischnachbar Sozialminister **Rudolf Hundstorfer** versuchte die Lage mit ein paar Scherzen zu entspannen. Ging nicht. Bandidon-Ortner verbeiß mit Ehemann **Andreas Bandidon** den Fisch, um sich in der Menge „unsichtbar“ zu machen.



Sajdik, Stamm
Nationalfeiertag in China mit Wiener Malerei um 1900 („Dame in Gelb“ von Max Kurzweil)

Joseph Haydn[®]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